**하이델 베르그 요리문답 (The Heidelberg Catechism)**

**<제 2 부>**

**열여섯 번째 주일(주의 날) (LORD’s Day 16)**

**40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야만 했나요?**

 **답)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따라, (1) 우리의 죄에 대해 내려 진 벌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들의 죽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2)**

**참조 성경귀절들:
(1) 창세기 2:17.**

**(2) 로마서 8:3; 빌립보서 2:8; 히브리서 2:9, 14-15.**

**Question 40.  Why was it necessary for Christ to humble himself even unto death?**

**Answer: Because of the justice and truth of God (1) satisfaction for our sins could be made in no other way than by the death of the Son of God.** **(2)**

**Bible References:**

**(1) Genesis 2:17.**

**(2) Romans 8:3; Philippians 2:8; Hebrews 2:9,14-15.**

1.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원죄에 대한 벌이 죽음이란 것을 알 수있다. 이 죽음은 두 종류로서, 일시적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영적) 죽음이다. 아담의 원죄에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커서, 벌로 내린 두 종류의 죽음이란 값을 피조물인 아담이 다 치를 수가 없다. 아담은 육체적으로 죽어, 일시적 죽음에 대한 벌의 값을 치를 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육체적으로 죽어, 일시적인 벌의 값을 치를 뿐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육체의 부활을 받을 수 또한 없다. 오직 하나님, 여기선, 아들 하나님께서만이 아담과 우리가 당할 육체적, 영적 죽음이란 벌의 값을 완전히 치르실 수가 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육체와 영의 부활 또한 보장된 것이다.

 (In Genesis 2:17, we find that a punishment for the Original Sin to break God’s covenant with Adam was a death. In fact, such a death was twofold; temporal and spiritual. Adam as a mere creature could not pay the price for his spiritual death, since divine wrath on his Original Sin was too great to fully pay for its twofold death as the punishment. Adam could only pay the price for a punishment of his physical death. Likewise, all of us could only pay the price for our punishment of a physical death. And none of us were able to receive a physical resurrection, either. Only divine being like the Son of God could fully pay the price for punishment of Adam’s physical and spiritual death and that of ours by guaranteeing us both our physical and spiritual resurrection.)

 **41문) 그리스도께서 왜 장사되셔야만 (무덤에 묻히셔야만) 했나요?**

 **답) 그 분의 장사되심은, 실제로 그 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1)**

**참조 성경귀절들:
(1) 이사야 53:9; 요한복음 19:38-42; 사도행전 13:29; 고린도전서 15:3-4.**

**Question 41.  Why was he buried?**

**Answer: His burial testified that he had really died. (1)**

**Bible References:**

**(1) Isaiah 53:9; John 19:38-42; Acts 13:29; 1 Corinthians 15:3-4.**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을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여전히 죽어야만 하나요?**

 **답) 우리가 죽는 것은 죄의 벌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 가기 위해서 입니다. (1)**

**참조 성경귀절들:
(1) 요한복음 5:24; 빌립보서 1:21-23; 데살로니가전서 5:9-10.**

**Question 42.  Since Christ has died for us, why do we still have to die?**

**Answer: Our death is not a payment for our sins, but it puts an end to sin and is an entrance into eternal life. (1)**

**Bible References:**

**(1) John 5:24; Philippians 1:21-23; 1 Thessalonians 5:9-10.**

1.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대신하여 영육이 벌을 받아 죽으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려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일 뿐이라고 비유적으로 묘사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14. 육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하여 살면서 죄를 짓고 살게 될 것이며, 죄와 싸우는 것도 계속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안에서 잠들게 하심으로써, 육체가 죽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다시금 죄를 지을 수도 없게 하시고, 싸우지도 않게 하신다. 육체가 죽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을 그만두고, 죄를 더 이상 짓지도 않고서, 영원한 생명에로 들어 가게 되기에, 육체적 죽음은 주님 예수 안에서 쉬려고 잠시 잠자는 것일 뿐이라는 비유로 표현된다.

 (Jesus died for our sins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erefore, we believers no longer die to pay for the price for our punishment, rather we fall asleep in Jesus Christ, 1 Thessalonians 4:14. If we don’t go through a physical death in Jesus, we will go on sinning and struggling against sin, thus we will never get to Heaven. Therefore, God grants us falling asleep at our physical death to end our continuing to sin and to struggle against sin. At our physical death, we cease our struggle against sin and to sin, and we enter into the life eternal through this passage of a physical death, that is, as a metaphor, we are ”falling asleep temporarily in Jesus the LORD” to rest in Him.)